

공부로 이끄는 힘

완자 공부력

교과서 문해력
교과서가 술술 읽히는 서술어 4A

| 정답과 해설 |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13~15쪽



정답

1 ① ㉠

2 ㉠

2 ① ㉠

2 ㉠

3 ㉠

4 ㉠

5 (뽕족한 | 평평한)

(숫아 | 흘러)

(똑같이 | 다양하게)

6 ㉠

7 ㉠

8 ㉠



풀이

- 문장에서 '무엇이' 숫았는지 확인하여 '숫다'의 뜻을 구분해 볼 수 있다. ①은 '기운이' 숫는다고 하였으므로 '숫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 '남산이' 숫아 있다고 하였으므로 '숫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빌딩이 숫아 있다.'와 '언덕이 숫아 있다.'에서 '숫다'는 '건물과 같은 구조물이나 지형물이 바닥에서 위로 나온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다. '용기가 숫았다.'와 '의욕이 숫았다.'에서 '숫다'는 '몸이나 마음속에 힘이나 의욕 등이 생겨나다.'라는 뜻이다.
- ㉠의 '숫다'는 산이 숫아 있다는 것으로, '건물과 같은 구조물이나 산과 같은 지형물이 바닥에서 위로 나온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다.
- 산, 들, 하천, 바다와 같은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한다.
- 들은 넓고 평평한 땅의 생김새를 말하며, 산은 높이 숫아 있는 땅의 생김새를 말한다. 또한 지형은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 ㉠의 '숫다'는 '사람의 몸이나 마음속에 힘이나 의욕 등이 생겨나다.'라는 뜻이다. '힘이 숫았습니다.'라고 한 ㉠의 '숫다' 역시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 이 글에서 '나'는 열심히 준비하여 발표를 멋지게 끝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을 의미하는 '의욕'을 넣어 '의욕이 숫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나'는 처음에는 발표할 생각에 떨렸지만, 매일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였더니 용기가 숫았다고 하였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새기다

2 ① ㉠

② ㉡

③ ㉢

3 ②

4 ①

5 ①

6 ②

7 ③

8 ①



풀이

- 1 '잊지 않도록 기억하다.'는 '새기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2 '무늬를 새깁니다.'와 '글자를 새기지 마세요.'에서 '새기다'는 '글씨나 사물의 생긴 모양 등을 파다.'라는 뜻이다. '추억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에서 '새기다'는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다.'라는 뜻이다.
- 3 ㉠의 '새기다'는 '글씨나 사물의 생긴 모양 등을 파다.'라는 뜻이므로 바위에 그림을 파고 있는 ㉡가 '새기다'를 바르게 나타내고 있다.
- 4 암각화는 바위에 새긴 그림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는 '글씨나 사물의 생긴 모양 등을 파다.'를 뜻하는 '새기다'를 문장 흐름에 맞게 사용한 ㉠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5 울산 암각화는 옛날 사람들이 동물과 그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새겨 놓은 바위그림으로, 이를 통해 나무로 동물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 6 ㉢의 '새기다'는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7 이 글에서 선비는 농부의 교훈을 새겨서 남의 잘못이나 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8 첫 번째 빈칸에는 '글씨나 사물의 생긴 모양 등을 파다.'라는 뜻의 '새기다'가, 두 번째 빈칸에는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다.'라는 뜻의 '새기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생각 | 조치)

2 ①

3 ①

4 ②

5 ③

6 (대피한다 | 방문한다)

(뺄는다 | 막는다)

(무시한다 | 확인한다)

7 ②

8 대처 / 협력

9 ㉞, ㉟



풀이

- 1 '조치'는 '벌어지는 상황을 잘 살피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행함. 또는 그 대책.'을 뜻하는 낱말로, '대처하다'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다.
- 2 '대응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라는 뜻으로, '대응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은 '대처하다'이다.
- 3 '대처하다'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에는 '대처하다'가 아닌 '감탄하다'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
- 4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확인하다'이다.
- 5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므로, '방법'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6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멀리 대피하고, 화산재가 떨어지고 있다면 실내로 대피해야 한다. 또 젖은 수건으로 문 틈을 막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에서 안내하는 정보를 확인한다.
- 7 '대처하다'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의 뜻을 가진 '대응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8 이 글에서 미세 먼지는 바람을 타고 넘나들어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한 나라만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미세 먼지 문제에 '대처'하려면 모든 나라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 9 미세 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25~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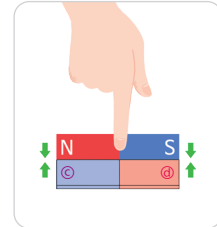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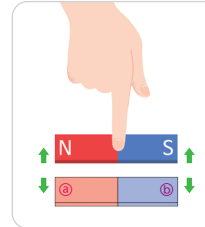
정답

- 1 ②
- 2 ㉠
- 3 ①
- 4 ③
- 5 ① 둔각
② 예각

6 ③

7 ① N/S

② S/N



풀이

- 1 '종류에 따라 갈라놓다.'는 '구별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 2 '구별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다.'의 뜻으로, ㉠의 경우 '구별하다'보다는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를 의미하는 '의논하다'와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 3 '구별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다.'의 뜻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의 뜻을 가진 '구분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 4 예각과 둔각은 직각인 90°를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다.
- 5 예각과 둔각은 직각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다. ①은 각도가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둔각'이고, ②는 각도가 0°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예각'이다.
- 6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 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만약 극 표시가 없는 자석이 있다면, 극 표시가 있는 자석을 활용하여 어느 쪽이 N극이고 어느 쪽이 S극인지 구분해 볼 수 있다.
- 7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 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①은 두 자석이 서로 밀어 내고 있으므로 ㉠은 N극, ㉡은 S극이다. ②는 두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으므로 ㉢은 S극, ㉣은 N극이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① L

2 ㉠

2 ②

3 ③

4 ①

5 ③

6 ① L

2 ㉠

7

세균

생각

기간

곤충

해감

인원

모래알

장소

곰팡이

8 ①



풀이

- ①의 '축소하다'는 '모양이나 규모 등을 줄여서 작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②의 '확대하다'는 '모양이나 규모 등을 더 크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 '확대하다'는 '모양이나 규모 등을 더 크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수나 분량 따위를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거나 무게를 더 나가게 하다.'라는 뜻의 '늘리다'와 뜻이 비슷하다.
- 지구를 지키려면 석탄이나 석유 에너지 발전을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 '확대하다'는 '모양이나 규모 등을 더 크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 디지털 영상지도에서 - 단추를 눌러 지도를 더 작게 하는 것은 '모양이나 규모 등을 줄여서 작게 하다.'의 뜻을 가진 '축소하다'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 지도를 축소하면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볼 수 있고, 지도를 확대하면 좁은 지역을 자세히 볼 수 있다.
- 디지털 현미경으로 크게 하여 관찰할 수 있는 크기가 작은 생물이나 물체를 찾아야 한다.
- 확대하는 것은 대상의 모양이나 규모 등을 더 크게 하는 것이므로 가장 크게 확대한 것은 대상을 가장 크게 보여 주는 ①이다.





독해 Point 이 글은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자연환경에 대해 살펴보는 글입니다. 자연환경의 의미와 종류를 알고, 각 지역의 자연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며 글을 읽어 보세요.

- 1 자연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말합니다. 자연환경에는 지형, 기후 등이 있습니다. 지형은 땅의 생김새를 말하는데, 지역마다 지형이 다릅니다. 높은 산이 곶아 있는 지역도 있고, 넓은 들이나 평야가 많은 지역도 있고, 강이나 바다가 가까운 지역도 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지역의 하나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 자연환경에는 지형, 기후 등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형이 다릅니다.

- 2 지역마다 다른 지형은 디지털 영상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선택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도를 확대하면 우리 지역의 지형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축소하면 내가 사는 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을 함께 보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영상지도로 내가 사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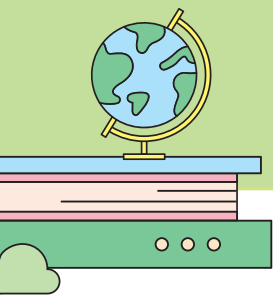
- 3 기후도 중요한 자연환경입니다. 기후는 기온, 강수량, 풍속 등의 요소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나 눈이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에 따라 습한 기후와 건조한 기후로 구별합니다. 기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기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면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후는 지역마다 다르며, 지역의 기후 특징을 알면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4 자연환경이 다르면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자연환경도 이해하고, 각 지역의 특징을 존중하는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 지역마다 다른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그 특징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 1 ④
- 2 ④
- 3 ①
- 4 자연환경 / 새겨야



- 1 디지털 영상지도를 축소하면 내가 사는 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을 함께 보고 비교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자세히 보려면 지도를 확대해야 한다.
- 2 디지털 영상지도를 활용하면 자연환경 중 기후가 아니라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 3 ①과 ①의 '솟다'는 '건물과 같은 구조물이나 산과 같은 지형물이 바닥에서 위로 나온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다. ②~⑤의 '솟다'는 '사람의 몸이나 마음속에 힘이나 의욕 등이 생겨나다.'라는 뜻이다.
- 4 이 글에서는 다양한 자연환경에 대해 설명한 뒤, 자연환경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를 이해하고, 각 지역의 특징을 존중하는 마음을 새겨야 한다고 하였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37~39쪽



정답

1 차단하다

2 ① ㉠

② ㉡

3 ②

4 ① (예방한다 | 예상한다)

② (이동한다 | 이용한다)

③ (대비한다 | 대피한다)

5 대처

6 ④

7 ①



풀이

- 1 '바람을 막다.'의 '막다'는 '액체나 기체 등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의 '차단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2 ①은 햇빛의 흐름이나 통로를 막는 것이므로 '차단하다'가 ①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는 접촉을 막는 것이므로 '차단하다'가 ②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3 ㉠의 대상은 전기와 가스이므로 '차단하다'가 '액체나 기체 등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차단하다'는 '공급하던 것을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끊다'와 뜻이 비슷하다.
- 4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한다. 또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넓고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 5 이 글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6 ㉠의 '차단하다'는 '다른 것과의 관계나 접촉을 막거나 끊다.'라는 뜻으로, ④의 '차단하다'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①~③의 '차단하다'는 '액체나 기체 등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 7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내용이 있는 누리집은 다시 보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③

2 ① L

2 ㉠

3 L

3 ①

4 ②

5 잊어~~버~~릴 수 있음. →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

6 ②

7 유적지

8 ①, ④



풀이

- 첫 번째 문장은 '공공 기관, 학교, 회사 등이 어떤 것에 특정한 자격을 준다.'의 뜻을 가진 '지정하다'가, 두 번째 문장은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하다.'의 뜻을 가진 '지정하다'가 들어가기에 알맞다.
- ①과 ③의 '지정하다'는 '공공 기관, 학교, 회사 등이 어떤 것에 특정한 자격을 준다.'라는 뜻이다. ②의 '지정하다'는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하다.'라는 뜻이다.
- ㉠과 ①의 '지정하다'는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하다.'라는 뜻이다. ②, ③의 '지정하다'는 '공공 기관, 학교, 회사 등이 어떤 것에 특정한 자격을 준다.'라는 뜻이다.
- 메모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짧막하게 적어 두는 일 또는 그렇게 적은 글을 의미하므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메모로 보기 어렵다.
- 이 글에서 메모를 하면 중요한 일이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유적지'라는 자격을 준다는 의미이므로, '공공 기관, 학교, 회사 등이 어떤 것에 특정한 자격을 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이 글은 옛날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유적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유적지는 옛날에 만들어진 건축물, 싸움터,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던 것처럼 옛날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므로 ①, ④를 유적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1 ① (나누다 | 남기다)

2 (한 사람 | 두 사람 이상)

2 ③

3 ① ㉠

2 ㉡

4 ④

5 ①

6 공유

7 ①

8 ③

9 (공유 | 녹음)

(결과 | 주제)

(결정 | 교환)



풀이

- ①의 '공유하다'는 '정보나 의견, 감정 등을 나누다.'의 뜻으로, ②의 '공유하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①의 '공유하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②의 '공유하다'는 '정보나 의견, 감정 등을 나누다.'라는 뜻으로 낱말을 바르게 사용하였다. ③은 책이나 장난감을 혼자 보거나 쓴다는 의미이므로 '독차지하다' 등의 낱말이 적절하다.
- ①과 ㉠의 '공유하다'는 '정보나 의견, 감정 등을 나누다.'의 뜻으로, ②와 ㉡의 '공유하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식물이나 동물이 아닌 생물에는 버섯이나 곰팡이 등의 균류, 미역이나 파래 등의 원생생물, 세균 등이 있다. 선인장은 식물에 해당한다.
- ①과 ①의 '공유하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④의 '공유하다'는 '정보나 의견, 감정 등을 나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우리는 식물, 동물, 식물이나 동물이 아닌 생물 등 다양한 생물들과 지구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 ㉢은 '정보나 의견, 감정 등을 나누다.'의 뜻을 가진 '공유하다'를 사용하여 주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 토의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어 기준에 따라 가장 알맞은 의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토의를 할 때에는 각자 떠올린 내용을 공유하여 토의 주제를 정하고, 토의 주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 그리고 정한 기준에 따라 가장 알맞은 의견을 결정한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 | | |
|-----------------|-----------|
| 1 ② | 6 둔각 / 예각 |
| 2 ③ | 7 ② |
| 3 (제외하고) 포함하여 | 8 ③ |
| 4 ① | 9 제외 |
| 5 ② | |



풀이

- '제외하다'는 '따로 떼어 내어 한곳에서 헤아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다.
- 제시된 문장에서 도서관은 금요일을 빼고 다른 요일에는 운영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도서관을 금요일에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글에서 '나'는 가족 여행으로 바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다른 식구들은 계곡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따라서 괄호 안에는 '따로 떼어 내어 한곳에서 헤아리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진 '제외하고'가 들어가야 알맞다.
- '제외하다'는 '따로 떼어 내어 한곳에서 헤아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다. ②는 '포함하다'의 뜻이다.
-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 이므로 한 각이 90° 이면 나머지 두 각은 각의 합이 90° 이다. 따라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은 모두 0° 보다 크고 90° 보다 작은 예각이다.
-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 이므로 한 각이 90° 보다 큰 둔각이면 나머지 두 각의 합은 90° 보다 작다. 따라서 둔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은 모두 0° 보다 크고 90° 보다 작은 예각이다.
- '제외하다'는 '따로 떼어 내어 한곳에서 헤아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 내다.'의 뜻을 가진 '빼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이 글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물건을 살 때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자신이 가진 돈을 확인하여 선택 기준을 정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물건을 비교해 본다. 이때 기준에 맞지 않는 물건을 제외하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 1 (물건 | 사람)
(간직하고 | 사용하고)
- 2 ③
- 3 ㉠
- 4 ①
- 5 (녹이는 | 유지하는)
(보관하고 | 정리하고)

- 6 ③
- 7 ②
- 8 ②
- 9 ① ㉠
② ㉠
③ ㉠



풀이

- 1 '보관하다'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다.'라는 뜻이다.
- 2 '보관하다'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두다'와 뜻이 비슷하다.
- 3 ㉠~㉢은 '보관하다'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만, ㉠은 '가다'와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보관하다'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다.'라는 뜻이다.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 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정돈하다'이다.
- 5 이 글에서 석빙고에 얼음을 보관하면 녹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석빙고가 재료를 차갑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아 석빙고는 음식을 차갑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창고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경상남도 창녕군에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석빙고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① 얼음을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이다. ②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 내부가 시원하게 유지된다고 하였다.
- 7 '보관하다'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다.'라는 뜻으로, ②는 '보관하다' 대신 '들다', '사용하다' 등의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8 영지버섯은 약이나 건강식품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고 하였다.
- 9 ①, ②는 균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해당하고, ③은 좋지 않은 영향에 해당한다.





독해 Point 이 글은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내용 중 옹기에 대해 살펴보는 글입니다. 옹기의 의미와 종류, 특징에 대해 알고, 옹기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살펴보며 글을 읽어 보세요.

- 1 옹기는 진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옹기는 크게 오지그릇과 질그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지그릇은 진흙으로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표면에 ◆젓물을 바릅니다. 그래서 겉이 매끄럽고 반들반들합니다. 질그릇도 진흙으로 만들지만, 표면에 젓물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이 거칩니다.

⇒ 옹기는 진흙을 구워 만든 그릇으로, 만드는 방법에 따라 오지그릇과 질그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 옹기는 숨을 쉬는 그릇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옹기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물은 들어오지 않고 공기만 통합니다. 옹기의 구멍은 옹기의 재료인 진흙에 있는 모래들 사이에 틈이 생겨 만들어집니다. 옹기를 굽는 과정에서 진흙에 있던 물이 사라지면서 그 사이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 옹기에는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옹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 3 옹기에 있는 구멍은 음식을 잘 썩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채소를 바로 먹을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옹기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 속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게 해 줍니다.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면 유산균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옹기는 공기가 통하는 그릇이라 그 안에서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 옹기에 있는 구멍은 음식을 잘 썩지 않게 하고, 유산균이 잘 자라도록 합니다.

- 4 옹기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옹기를 만드는 방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옹기를 만드는 사람인 '옹기장'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그리고 옹기를 알리는 자료를 만들어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옹기를 만들고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젓물: 도자기의 몸에 덧씌우는 약. 도자기에 액체나 기체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며 겉면에 광택이 나게 한다.



- 1 ②
- 2 진흙 / 표면 / 거침
- 3 (지정하고) 확인하고
(공유하며) 저장하며
- 4 ⑤



- 1 옹기에는 구멍이 있어 음식을 보관하면 음식이 잘 썩지 않는다고 하였다. ① 옹기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② 옹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다. ④ '옹기장'은 옹기를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⑤ 옹기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통해서 유산균이 잘 자란다.
- 2 옹기는 오지그릇과 질그릇으로 나뉘며, 둘 다 진흙으로 만든다. 오지그릇은 표면에 잿물을 발라 반들반들하지만, 질그릇은 잿물을 바르지 않아 표면이 거칠다.
- 3 나라에서는 '옹기장'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옹기를 만드는 방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옹기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옹기를 널리 알리고 있다.
- 4 ①, ④는 '공유하다'의 뜻이다. ②는 '보관하다'의 뜻이다. ③은 '제외하다'의 뜻이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 1 ① ㉠
② ㉡
2 ① ㉡
② ㉠
3 ①

- 4 ③
5 응결 / 변하는
6 ②, ③
7 ㉡ / ㉢ / ㉣



풀이

- 1 ①은 이슬이 맺힌 것이므로 '맺히다'가 '물방울이나 땀방울 등이 생겨 매달리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②는 열매가 맺힌 것이므로 '맺히다'가 '열매나 꽃망울 등이 생겨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2 ① '피가 맺혔다.'와 ㉡ '땀이 맺혔다.'의 '맺히다'는 '물방울이나 땀방울 등이 생겨 매달리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②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와 ㉠ '꽃망울이 맺혔다.'에서 '맺히다'는 '열매나 꽃망울 등이 생겨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다.'의 뜻으로 쓰였다.
- 3 ㉠은 물방울이 맺힌 것이므로 '맺히다'가 '물방울이나 땀방울 등이 생겨 매달리게 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4 응결은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변하는 현상으로, 보통 물체의 표면에 맺히는 물방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냄비를 가열했을 때 뚜껑 안쪽에 물이 '맺히는' 것도 응결 현상이다.
- 5 응결은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글은 응결 현상의 뜻과 그 예를 설명하고 있다.
- 6 ㉡은 포도 열매가 맺힌 것으로 '맺히다'가 '열매나 꽃망울 등이 생겨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맺히다'는 '열매가 맺히다.'의 뜻을 가진 '열리다'나 '달리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7 포도는 '탱탱하고 둥글둥글한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인 '탱글탱글'을 활용한다. 눈물은 '눈에 눈물이 넘칠 듯이 그득 그득'을 나타내는 표현인 '그렁그렁'을 활용한다. 땀은 '살갗에 아주 작은 땀방울 등이 많이 돌아난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인 '송송'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1 ① (낮은 | 높은)

② (커지다 | 작아지다)

2 발달했다

3 ①

4 ① ㉠

② ㉡

5 ① ㉠

② ㉡

③ ㉢

6 ②

7 (깎는 | 운반하는) (상류 | 하류)

(깎이는 | 쌓이는) (상류 | 하류)

8 ③



풀이

- 1 ①에서 '발달하다'는 '학문, 기술, 문명, 사회 등의 현상이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른다.'의 뜻으로, ②에서 '발달하다'는 '기업, 태풍 등의 규모가 점차 커지다.'의 뜻으로 쓰였다.
- 2 '지리상의 어떤 지역이나 대상이 제법 크게 형성되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발달하다'이다.
- 3 ㉠의 '발달하다'는 '학문, 기술, 문명, 사회 등의 현상이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른다.'라는 뜻으로,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다.'를 뜻하는 '발전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4 ① 인터넷 지도를 통해 빠른 길 찾기, 입체 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지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5 도로에서 길을 찾을 때는 도로 교통 지도를, 전시실의 위치를 확인할 때는 안내도를, 버스가 이동하는 방향을 알고 싶을 때는 버스 노선도를 활용할 수 있다.
- 6 ㉠에서 '지형'은 '땅의 생긴 모양.'을 뜻하고, '발달하다'는 '지리상의 어떤 지역이나 대상이 제법 크게 형성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7 침식 작용은 흐르는 물이 바위나 돌, 흙 등을 깎는 현상으로, 강 상류에서 주로 일어난다. 퇴적 작용은 흐르는 물을 따라 운반된 돌이나 흙 등이 쌓이는 현상으로, 강 하류에서 주로 일어난다.
- 8 이 글은 흐르는 물에서 일어나는 침식 작용, 운반 작용, 퇴적 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작용에 따라 강의 상류와 하류에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69~71쪽



정답

1 ②

2 ㉠

3 ①

4 ① ㉠

② ㉠

③ ㉠

5 기상청

6 ③

7 (양쪽 | 한쪽)

(만드는 | 측정하는)

8 ① ②

② ②



풀이

- 1 '재다'는 '기구를 이용하여 길이, 너비, 높이 등의 정도를 알아보다.'의 뜻으로,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재다.'를 의미하는 '측정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2 '측정하다'는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재다.'라는 뜻으로, 거리, 시력, 미세 먼지의 농도 등을 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의 경우 '측정하다'를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으며, '살펴보다' 등의 낱말을 쓸 수 있다.
- 3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설명하다'이다.
- 4 기온을 측정하는 것은 공기의 온도를 재는 것이고, 풍속을 측정하는 것은 바람의 속도를 재는 것이다. 또 강수량을 측정하는 것은 비와 눈 등 땅 위에 내리는 물의 양을 재는 것이다.
- 5 기상청은 기온, 풍속, 강수량 등을 측정하고 관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일기 예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6 블록의 무게를 알아본다는 의미가 되도록 '무게를 재다.', '무게를 달다.', '무게를 측정하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접다'는 '종이 등을 꺾어서 겹치다.'의 뜻으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지 않다.
- 7 양팔저울은 양쪽에 각각 한 개씩 접시가 달려 있는 저울로, 접시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 8 ①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모양으로 보아 초록색 블록 3개는 빨간색 블록 2개와 무게가 같음을 알 수 있다.
② 초록색 블록이 한 개에 10 g이라고 하였고, 초록색 블록의 무게의 합인 30 g은 빨간색 블록 두 개의 합과 같다. 색이 같으면 블록의 무게도 같으므로 빨간색 블록 한 개의 무게는 15 g이다.





정답

1 ②

2 ②

3 ① ㉠

② ㉡

4 ①

5 ②

6 희소성 / 부족

7 ②

8 ① ㉠

② ㉡

③ ㉢



풀이

- 1 '부족하다'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따로 떼어 내어 한곳에서 헤아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제외하다'이다.
- 2 '부족하다'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라는 뜻의 '충분하다'와 뜻이 반대된다.
- 3 ①은 민하가 학생회장이 될 자격에 모자람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충분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②는 준서의 잠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부족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4 ①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부족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5 ㉠은 희소성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자원의 양이 부족해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더 적은 상황을 가리킨다. 이는 에어컨의 수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더 적은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6 이 글은 희소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필요에 비해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희소성이라고 한다.
- 7 글쓴이는 환경을 보호하려면 구입한 다회용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과 같이 이야기한 것은 텀블러가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8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일로, ①과 ②는 사실에 해당한다. 의견은 어떤 사실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③은 의견에 해당한다.





정답

1 (말하는 | 생활하는)
(물건 | 생각)

2 생산한다

3 ②

4 ① X

② O

5

죽	생	방	물	산	활
법	산	주	필	생	요
소	만	건	소	비	동

6 ②

7 ②

8 ① L ② T ③ C



풀이

- 1 '생산하다'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2 이 문장에서 '만들다'는 '노력이나 기술 등을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라는 뜻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다.'의 뜻을 가진 '생산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3 '생산하다'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다.'라는 뜻이다.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등을 들이거나 써서 없애다.'라는 뜻의 낱말은 '소비하다'이다.
- 4 ① 자연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생산 활동에 해당한다. ②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생산 활동에 해당한다.
- 5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면,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
- 6 '생산하다'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다.'라는 뜻으로, '노력이나 기술 등을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라는 뜻의 '만들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7 이 글은 화산 활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이로운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8 화산 활동으로 생긴 온천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화산 주변의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또 화산재가 쌓인 땅은 양분이 많아져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 있다.





독해 Point 이 글은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지역 간의 교류에 대해 살펴보는 글입니다.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물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물건,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글을 읽어 보세요.

① 물건에는 물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용량을 적어 두어 따로 **측정하지** 않아도 물건의 용량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물건을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알 수 있는 생산 정보를 적어 두기도 합니다. 생산 정보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만든 물건도 있고,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서 만든 물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생산 정보를 통해 물건의 생산지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지역마다 자연환경이나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건도 다릅니다. 들이 **발달하여** 지역이 서로 교류를 하는 이유 논과 밭이 많은 지역은 곡식이나 채소가 풍부하지만, 해산물은 ㉠ **부족합니다**. 반대로 바닷가 근처의 지역은 해산물은 풍부하지만 곡식이나 채소는 부족합니다. 이때 각 지역은 교류를 통해 자신의 지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물건을 팔고, 부족한 물건은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교류 사 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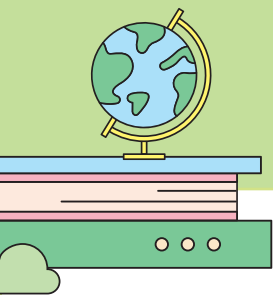
⇒ 지역마다 생산되는 물건이 다르므로, 각 지역은 서로 생산물을 사고팔며 교류합니다.

③ 지역 간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문화 및 관광 교류가 이루어지 교류의 다양한 유형 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생산하는 지역은 기술이 발달한 지역과 교류하여 과일의 당도를 높이는 기술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달콤한 열매가 **맺혀** 과일을 더 많이 딸 수 있습니다. 또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끼리 교류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 각 지역은 기술이나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도 교류합니다.

④ 이처럼 각 지역은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각 지역은 생산물을 사고팔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없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집니다. 지역 간 교류의 효과 ① 또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지역이 발전합 지역 간 교류의 효과 ② 니다. 지역 간 교류의 효과 ③

⇒ 각 지역은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 1 ⑤
- 2 ②
- 3 ④
- 4 교류



- 1 각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교류하며 자신의 지역에서 부족한 물건을 다른 지역에서 사 온다.
- 2 과일의 맛을 더 좋게 하려면 농업 기술이 발달한 지역과 교류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 3 '부족하다'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반대되는 낱말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라는 뜻의 '충분하다'이다.
- 4 이 글은 지역끼리 서로 교류하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정답

1 ㉔

2 ㉑ ㉒

㉓ ㉔

㉕ ㉖

3 ㉔

4 ㉓

5 ㉑ (끊겼다 | 끊었다)

㉒ (끊겼다 | 끊었다)

6 ㉔

7 지진 / 영향

8 ㉑ ㉒

㉓ ㉔

㉕ ㉖



풀이

- 1 첫 번째 문장은 '길 등의 통로가 막히다.'라는 뜻의 '끊기다'가 들어가기에 적절하고, 두 번째 문장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되다.'라는 뜻의 '끊기다'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2 ㉑은 도로가 끊겼다고 하였으므로 '끊기다'가 '길 등의 통로가 막히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㉒와 ㉓은 각각 발길과 연락이 끊겼다고 하였으므로 '끊기다'가 '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3 ㉔은 발길과 손길이 끊어졌다는 의미로, '끊기다'가 '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4 글쓴이는 사람들의 발길과 손길이 끊기면 나무로 만든 건물이 더 빨리 낡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옛 건물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 5 ㉑은 '그 남자'가 관계를 이어지지 않게 행동한 것으로, '끊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㉒는 감염병 때문에 관광객이 관광지에 오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로, '끊겼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6 이 글에서 지진의 영향으로 도로가 끊길 수 있다고 하였고, 도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㉑에는 '끊기면'이나 '끊어지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7 이 글은 지진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8 문장에서 무엇이 끊겼는지를 확인하여 뜻을 구분해 본다. ㉑은 탈것인 버스가 끊긴 것으로, '끊기다'가 ㉑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㉒는 통로인 철길이 끊긴 것으로, '끊기다'가 ㉑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㉓은 공급되던 전기가 중단된 것으로, '끊기다'가 ㉑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개발했다

2 ① ㉠

② ㉡

③ ㉢

3 ㉠ / ㉡

4 ① (개발합니다 | 재배합니다)

② (개발합니다 | 생산합니다)

5 ②

6 ①

7 ③



풀이

- 새롭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놓다.'라는 뜻의 '개발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①과 ③은 각각 천연자원과 토지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개발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는 새로운 메뉴를 생각해 낸 것이므로 '개발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은 경치가 좋은 자연환경을 관광지로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①의 예에 해당한다. ㉡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②의 예에 해당한다.
- ① '재배하다'는 '식물을 심어 가꾸다.'라는 뜻으로, 기후가 따뜻한 지역에서는 감귤을 재배한다. ② '생산하다'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다.'라는 뜻으로, 석회석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시멘트를 생산한다.
- 이 글에서는 지역마다 자연환경이나 기술, 자원 등이 달라 생산하는 상품이 다르다고 하였다.
- ㉢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낸 것이므로 '개발하다'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놓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④의 '개발하다'는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①의 '개발하다'는 '토지나 천연자원 등을 유용하게 만들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유글레나에는 친환경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글레나를 길러서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정답

- 1 ① (물 | **흙**)
(보이게 | **보이지 않게**)
② (**큰** | 작은)
(**남기다** | 없애다)
- 2 ① ㉠
② ㉡
- 3 ②

- 4 ㄷ / 히 / 무치다
5 ②
6 묻혔습니다
7 ③
8 ③



풀이

- 1 ①의 '묻히다'는 '물건이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떨어져 보이지 않게 덮이다.'의 뜻이다. ②의 '묻히다'는 '가루, 풀, 물 등을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게 하거나 흔적을 남기다.'의 뜻이다.
- 2 ①과 ㉠의 '묻히다'는 '물건이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떨어져 보이지 않게 덮이다.'라는 뜻이다. ②와 ㉡의 '묻히다'는 '가루, 풀, 물 등을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게 하거나 흔적을 남기다.'라는 뜻이다.
- 3 ㉠은 붓에 물감을 묻게 하는 것으로, '가루, 풀, 물 등을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게 하거나 흔적을 남기다.'의 뜻이다.
- 4 '묻히다'처럼 받침 'ㄷ' 뒤에 '히'가 오면 [ㅈ]으로 바뀌어 [무치다]로 소리가 난다.
- 5 받침 'ㄷ', 'ㅌ' 뒤에 모음 'ㅣ'가 오면 각각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가 난다. 따라서 ②의 '묻히다'는 [부치다]로 소리가 난다.
- 6 '물건이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떨어져 보이지 않게 덮이다.'를 뜻하는 낱말은 '묻히다'로, ㉠은 소리 나는 대로 쓴 '무쳤습니다'를 '묻혔습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7 ㉡과 ③의 '묻히다'는 모두 '물건이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떨어져 보이지 않게 덮이다.'라는 뜻이다. ①, ②, ④의 '묻히다'는 '가루, 풀, 물 등을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게 하거나 흔적을 남기다.'라는 뜻이다.
- 8 무령왕릉은 옛날 왕이 묻혀 있는 무덤이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한 | 여러)

(한곳 | 여러 곳)

(보게 | 설명하게)

2 ③

3 ㉠

4 ②

5 ④

6 ②

7 ②

8 전시합니다

9 ②



풀이

- 1 '전시하다'는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게 하다.'라는 뜻이다.
- 2 '전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실제 존재하는 물품이어야 하므로 '생각'을 전시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3 '전시하다'는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게 하다.'라는 뜻으로, ㉠은 '전시하다'가 아닌 '보관하다', '정리하다' 등의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의 '전시하다'는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게 하다.'라는 뜻이다. ①은 '관찰하다', ③은 '개발하다'의 뜻이다.
- 5 정우네 모듬은 전시 공간을 달에 대한 내용으로 꾸미기로 하였다. 바다거북의 알을 찍은 사진은 전시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전시 공간에서 보기 어렵다.
- 6 정우는 누리집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찾았지만, 전시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 7 '전시하다'는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게 하다.'라는 뜻으로, 탈춤놀이는 '공연하다'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8 여러 유물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게 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낱말은 '전시하다'이므로, ㉠은 '전시합니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9 기념관은 의미 있는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 기억하려고 세운 곳으로, 인물에 대해 알 수 있는 여러 유물을 모아서 전시한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훼손하다

2 ①

3 ㉔

4 ①

5 ②

6 역사 / 노력

7 ③

8 ②

9 ③



풀이

- 1 밑줄 그은 말은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라는 뜻의 '훼손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2 ②~④는 대상을 못 쓰게 만든다는 뜻의 낱말이지만, ①은 시설이나 물건을 유지하거나 더 좋게 고친다는 뜻의 낱말이다.
- 3 '훼손하다'는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㉑~㉔의 빈칸에는 '훼손하다'를 넣을 수 있다. ㉔은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참여하다' 등의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㉑의 '훼손하다'는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라는 뜻이다. ②는 '개발하다', ③은 '방문하다'의 뜻이다.
- 5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려면 축제를 열어 지역의 국가유산을 널리 알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 6 이 글은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7 '훼손하다'는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파손하다', '망가뜨리다' 등의 낱말과 바꾸어 쓸 수 있다. 따라서 '훼손하지 않고'는 '망가뜨리지 않고'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8 이 글은 야외에서 동물과 식물을 탐구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9 동물이나 식물을 탐구하려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정해진 활동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독해 Point 이 글은 4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 내용 중 적정 기술에 대해 살펴보는 글입니다. 적정 기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적정 기술의 사례를 살펴보고 글을 읽어 보세요.

- 1 적정 기술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주로 개발이 덜 이루어진 지역에서 필요한데, 도움의 손길이 ㉠ 끊겨도 적정 기술을 활용하여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적정 기술로 만든 장치를 전시하며 적정 기술을 널리 알리기도 합니다.

⇒ 적정 기술은 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 2 아프리카에는 풍부한 광물 자원이 ㉡ 묻혀 있지만 지역에 따라 물이 더럽거나 부족하기도 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아 이를 위한 적정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 빨대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적정 기술입니다. 생명 적정 기술의 사례 ① 생명 빨대의 기능

빨대를 오염된 물에 넣고 물을 빨대로 빨아들이면, 빨대 안에서 물이 걸러져 깨끗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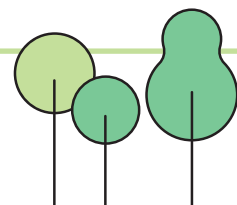
⇒ 생명 빨대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적정 기술입니다.

- 3 와카 워터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적정 기술입니다. 그 지역에 자라는 와카나무의 줄기를 엮어서 만든 틀에 물방울이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을 달아 만듭니다. 그물에는 온도가 달라지며 생긴 물방울이 맺히고 이 물방울을 모아 물을 얻습니다. 와카 워터의 아래쪽은 낮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 물의 증발을 막고,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 와카 워터는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적정 기술입니다.

- 4 소켓 불은 공놀이를 하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공을 발로 차면 생기는 충격을 전기로 바꿉니다. 이렇게 모은 전기로 전자 제품을 사용하거나 밤에 전등을 켤 수 있습니다. 소켓 불은 전기가 부족한 지역에 큰 도움을 줍니다.

⇒ 소켓 불은 공놀이를 하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적정 기술입니다.





- 1 적정 기술
- 2 ① (보호하지 | **훼손하지**) ② (**개발하고** | 사용하고) ③ (**부족한** | 풍족한)
- 3 ① C ② T ③ L
- 4 ④



- 1 이 글은 기술을 사용하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적정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 ① 적정 기술은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② 적정 기술은 주로 아프리카와 같이 개발이 덜 이루어진 곳에서 사용하며, 전문가들은 다양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③ 아프리카는 물과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와카 워터'나 '소켓 볼' 등의 적정 기술을 활용한다.
- 3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와카 워터를, 전기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전기를 만들어 내는 소켓 볼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지역에서는 휴대용 정수기 같은 개념의 생명 빨대를 활용할 수 있다.
- 4 ①의 '끊기다'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되다.'라는 뜻으로, ①, ②, ③, ⑤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의 '끊기다'는 전기나 가스와 같이 '공급되던 것이 중단되다.'라는 뜻이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실력 확인

1회

○ 맞힌 개수

/ 15개

본문 106~107쪽

- | | | |
|------------------|---------|--------|
| 1 ㉠ | 2 ㉡ | 3 ㉢ |
| 4 ㉣ | 5 ㉤ | 6 구별했다 |
| 7 지정했다 | 8 솟았다 | 9 ㉥ |
| 10 ㉦ | 11 ㉧ | 12 묻히다 |
| 13 전시하다 | 14 부족하다 | |
| 15 ㉨ 확대하다 ㉩ 대처하다 | | |

- 1 '보관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2 '개발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3 '새기다'의 뜻에 해당한다.
- 4 ㉤은 '맞히다'의 뜻에 해당한다.
- 5 ㉣은 '집어넣다'의 뜻에 해당한다.
- 6 물체를 종류에 따라 갈라놓을 때 '구별하다'를 사용한다.
- 7 나라에서 자연에 국립 공원이라는 특정한 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지정하다'를 사용한다.
- 8 용기와 같이 사람의 몸이나 마음속에 힘이나 의욕 따위가 생겨날 때에는 '솟다'를 사용한다.
- 9 이 문장에서 '차단하다'는 '액체나 기체 따위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막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10 첫 번째 문장은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두 번째 문장은 '정보나 의견, 감정 따위를 나누다.'라는 뜻으로 '공유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1 '생산하다'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다.'라는 뜻으로, 반대되는 의미의 낱말은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다.'라는 뜻의 '소비하다'이다.
- 12 빵가루를 고구마에 둘러붙게 할 때 '묻히다'를 사용한다.
- 13 여러 작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게 할 때 '전시하다'를 사용한다.
- 14 노동력이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을 때 '부족하다'를 사용한다.
- 15 현미경으로 물체를 크게 볼 때 '확대하다'를 사용한다. 위험한 재난 상황에 알맞은 조치를 취할 때 '대처하다'를 사용한다.



2회

○ 맞힌 개수

/ 157개

본문 108~109쪽

- | | | |
|---------|------|------|
| 1 ㉠ | 2 ㉡ | 3 ㉢ |
| 4 ㉣ | 5 ㉤ | 6 ㉥ |
| 7 ㉦ | 8 ㉧ | 9 ㉨ |
| 10 ㉩ | 11 ㉪ | 12 ㉫ |
| 13 ㉬, ㉭ | 14 ㉮ | 15 ㉯ |

- 1 '대처하다'는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다.
- 2 '생산하다'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다.'라는 뜻이다.
- 3 '전시하다'는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게 하다.'라는 뜻이다.
- 4 '훼손하다'는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라는 뜻이다.
- 5 눈물이 생겨 매달리게 될 때 '맺히다'는 ㉠의 뜻이다.
- 6 열매가 생겼을 때 '맺히다'는 ㉠의 뜻이다.
- 7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 넉넉한 상황에서는 '충분하다'를,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해산물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는 '부족하다'라는 낱말을 사용한다.
- 8 ㉠의 '묻히다'는 '물건이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떨어져 보이지 않게 덮이다.'라는 뜻이고, ㉡와 ㉢의 '묻히다'는 '가루, 풀, 물 따위를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게 하거나 흔적을 남기다.'라는 뜻

이다.

- 9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될 때 '끊기다'를 사용한다.
- 10 나무로 만든 판에 모양을 팔 때에는 '새기다'를 사용한다.
- 11 이 문장에서 '발달하다'는 '학문, 기술, 문명, 사회 따위의 현상이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12 '대처하다'는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라는 뜻의 '대응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13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신입 사원을 뽑는 규모를 더 크게 한다는 문장이 적절하므로, '늘리다'와 '확대하다'를 사용한다.
- 14 창문의 길이를 잴 때 '측정하다'를 사용한다.
- 15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낼 때 '개발하다'를 사용한다.

3회

○ 맞힌 개수

/ 15개

본문 110~111쪽

- 1** 지정하다 **2** 구별하다 **3** 차단하다
4 부족하다 **5** 묻혔다 **6** 보관해야
7 맺혔다 **8** ② **9** ㉠
10 ㉡ **11** ㉢ **12** ㉣
13 ③ **14** ① 개발하다 ② 발달하다
15 측정하고 / 공유합니다 / 대처합니다

11 야생 동물이 텃밭을 망가뜨릴 때 '훼손하다'를 사용한다.

12 발명품을 강당에 놓고 보여 줄 때 '전시하다'를 사용한다.

13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줄여서 작게 하다.'라는 뜻의 '축소하다'와 반대되는 낱말은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더 크게 하다.'라는 뜻의 '확대하다'이다.

14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낼 때 '개발하다'를 사용한다. 강변에 습지 지형이 크게 형성되었을 때 '발달하다'를 사용한다.

15 미세 먼지의 농도를 잴 때에는 '측정하다'를 사용하고, 정보를 사람들과 나눌 때에는 '공유하다'를 사용한다. 또 미세 먼지가 나쁨 수준일 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때에는 '대처하다'를 사용한다.

1 '지정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2 '구별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3 '차단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4 '부족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5 걸레에 물의 흔적을 남길 때 '묻히다'를 사용한다.

6 음료를 냉장고에 둘 때 '보관하다'를 사용한다.

7 이마에 땀이 생길 때 '맺히다'를 사용한다.

8 '따로 떼어 내어 한곳에서 헤아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제외하다'는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떨어 내다.'라는 뜻을 가진 '빼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9 마음속에서 흥이 생겨날 때 '솟다'는 ㉠의 뜻이다.

10 산이 위로 나온 상태일 때 '솟다'는 ㉡의 뜻이다.